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2:1-12

성도 추모 주일을 지키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 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신 교우님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10 시 예배시간에 8 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동행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고, 이모 저모로 격려하고 계심을 압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소천하신지 10 년이 넘으셨는데, 그 분의 정신과 사랑은 제 삶 가운데 힘차게 넘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설적이지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 그 때에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수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유대 종교의 한 분파로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속하는 것도 아님을 천명하였습니다. 예수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 라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전도하였습니다.

자기들 뜻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바울을, 가만히 놔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뒷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이, 12 제자들 처럼,

예수님이 친히 불러 세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짜 사도라고 몰아 부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복음 사역하고 있다고 밀어 부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 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며는, 바울의 말씀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9 절에서도, “경건하고 올바르게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다” 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진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중학교를 선린 중학교 다녔습니다. 문교부에서 지정한 성실 학교라고 하였지요. 성실이 교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성실이라는 말을 매일 듣고 살았습니다.

성실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성실은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 죽이지 않고, 도적질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온전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겁니다. 계명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계명 잘 지켜서 남에게 자랑하고싶어서, 남에게 놀림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명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삶은, 사람의 눈을 인식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신문기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 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동차에서 스파크 플러그를 하나 뽑고 수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 마다, 스파크 플러그 수리 외에도 이것 저것 수리를 했다고 하면서, 또 어떤 수리공은, 수리 하지도 않고, 수리했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이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작은 자동차 수리 가게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후드를 열어보더니, 한번 엔진 소리 좀 들어 봅시다 하고는, 곧,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네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플러그 연결하는 줄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빠져있네요. 하면서 끼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수리비 없습니다. 고친 것이 제가 뭐 있나요? 빠져 있는 줄을 낀 것 밖에 없는데요.” 아니 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리 공 왈,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저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수리공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수리하고 잘 수리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동네신문에, 헤드라인이, “그리스도인 자동차 수리공,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실은 진실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 진실입니다.

제 아내가, 농담으로,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면, 가훈을 진실이라고 했을까? 맞아요, 진실해야 하기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가훈이 되어, 늘 깨어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진솔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여정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7 절) 11 절 말씀에 보며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 하나를 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받아 들였습니다. 바울은 교우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눈 먼자들을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놀림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 주는 지에 관심이 있다.” “They do not care how much you know but how much you care.”

우린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먼저, 이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열이 좋아하는 마음 에로스 사랑이지요. 그리고 두번째 정의는 사람을 이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폭넓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위키 사전에서는, 간단하게,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배나기 모임에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힘차게 전해 주는 성경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말 조심히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면 되겠냐고 하셨지요. 말이 마음과 알맹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마음의 마와 알맹이의 알 이 합쳐져서, 마 알.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들은,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말이,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치유시켜 줍니다.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잘 하셨어요”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덕분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받아주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천국 방언이 있다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훌륭합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천국 방언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용하는 말들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여,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천국 말을 하면, 마음에 천국 알맹이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디의 옛 말이, “괴다” “괴다” “고이다”라고 합니다. 본래 뜻은 “생각하다” 인데, 이는 사랑한다는 것이란, 곧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웃음이 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고 감동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삶은, 우리 가족과 친구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인종 차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종 차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미 합중국에서, 흑인 남자 세명 중의 한 명은 감옥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흑인 남자들이 감옥에 갇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간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무수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가 아니라, 마약 팔고 산다고 잡혀간다고 합니다. 경범죄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갔다오며는, 빨간 딱지가 붙어서, 일자리 제대로 못잡고, 투표권도 상실하고, 살 곳 찾기도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재활 하지를 못하니,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제대로 경제 생활 가정 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사회가 흑인들을 흑인 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들을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골치거리라고 하고 딱지를 붙혀 놓고,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덩달아,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흑인들을 범죄인들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범죄 소굴이라고 딱지를 붙힙니다. 오래 전 부터, 백인 우월 사상으로 깊숙히 정치,사회 경제 구조 가운데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는 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9 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웨어필드 교회에서는, ‘Just Mercy’ 라는 책을 각자 읽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인권 변호사인 브라이언 스티븐슨 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억울하게, 특히 흑인이기에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구조적 인종 차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일하면서 쓴 책인데, 참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 변호사는 참 사랑과 관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7 시에 함께 영화로 나온 “Just Mercy”를 봅니다. 예배에 들어오시듯이, 줌으로 오시면, 함께 보게 됩니다. 책 안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무쪼록,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솔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 이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